

기생충 및 지역주민 건강 관리 대책 제시

- 국민건강 관리 세미나서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세미나가 지난해 12월 2일 건강관리협회 주최로 본회 홍보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사를 통해 서병설 건협 회장은 『국민건강관리 정착의 필요성은 이제 어느정도 인식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신생아 때부터 시작하여 평생건강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장이 이룩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관심있는 관계인들의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동기 심장병 관리”라는 주제 발표에서는 학생 심장병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심질환관리 정착을 위한 지침 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심장병관리의 개선은 우리나라 학동기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심장검진”의 의무화, 보

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생충관리대책”에서는 그동안의 기생충관리 결과를 보고하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있는 기생충들의 예외 특성, 관리방향을 제시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기생충 감염도 토양 매개성으로부터 요충, 간흡충 등의 특수 기생충으로 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서는 요충, 간흡충의 집단관리와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지막 주제였던 농촌주민건강 향상 대책에서는, 『농어촌지역 주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교육의 강화, 1차보건의료사업 실행, 모자보건사업 등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시도 보건과장, 각급학교 양호교사, 관련보건단체 인사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학생과 취약지역 건강관리사업 정착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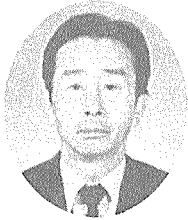
○학동기 심장병 관리(이홍재 부천 세종병원소아과과장)

○기생충 관리(채종일·서울의대 기생충학 교수)

○농촌 주민 건강 향상 대책(최삼섭, 이화의대 교수)

장재성 · 김병기 국장 정년퇴임

- 재임동안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중추적 역할



장재성 국장



김병기 국장

장재성 전 강원지부 사무 국장과 김병기 전 제주지부 사무국장이 지난해 12월 19일자로 정년 퇴임했다.

장국장은 60년 이리 원광대를 졸업하고, 본회 기생충관리사업의 초창기였던 '67년에 본회에 입사해 조사연구·사업·사무 과장 등을 거쳐 '84년에 강원지부

사무국장이 되었으며 김국장은 '52년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치대병원에서 근무하다가 '66년에는 제주도 위생시험소장을 역임한 바 있고 '72년 본회 제주지부에 입사해 '75년 제주지부 사무국장이 되었다.

장·김국장은 본회에 입사한 이래 기생충, 건강관리사업을 본 궤도에 오르도록 하는 한편 강원·제주지부가 지역주민 건강관리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는데에 많은 공헌을 했다.

한편 이날 퇴임식에는 장·김국장의 가족과 협회 직원이 참석해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나눴다.

세계 AIDS의 날 제정

- 좀더 적극적 계몽활동 전개키 위해

세계보건기구(W. H. O)는 '88. 12. 1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정하고, AIDS에 대한 계몽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은 모든 사람에게, 인류가 AIDS의 전파를 막을 수 있고, 개인의 책임있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며 감염자와 환자를 이해하고 동정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AIDS 종식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참여토록하고 국내 AIDS 전

파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마스크를 통하여 AIDS의 현황과 예방법 등을 홍보하고 해외여행자, 입국자 등 감염 위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팸플릿, 소책자 비디오 테이프 등을 제작해 배부, 교육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보건사회부는 이날을 계기로 해서 좀더 적극적인 계몽활동을 펴기로 하고 지역별 자체 계획 수립, 유관단체의 협조, 취약지역 홍보계몽사업 실시등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 증진에 적극성 필요

- 경남 의보조합 대표이사 간담회서 제시



健協 경남지부는 지부관내 의보조합 대표이사 초청 간담회를 지난해 11월 29일에 가졌다.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기생충 관리 및 성인병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보건에 방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의보조합 대표이사, 경상남도 사회과장, 의료보장계장, 보건과장, 방역계장을 비롯해 협회 관련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박찬규 경남지부 부지부장(도 보사국장)은, 『우리나라 의보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건강 수준의 향상에 있으며, 국민 건강 수준의 향상은 질병의 예방 조기진단·치료, 재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가 행해졌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보험혜택의 내용도 치료뿐만이 아니 예방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건

장관리, 기생충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반성과 더불어 경남도민의 건강관리, 특히 조합산하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견들이 대표이사들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홍보계몽 자료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사업 전개가 제안되기도 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위한 실무 교육

대사 이상 검사에 대비

건협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에 걸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에 따른 교육”을 본회 홍보관에서 가졌다.

올해부터 서울, 부산, 대구지부를 시작으로 해서 실시케 되는 대사이상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키 위해 가진 이번 교육에는 각 시도지부 임상병리사와 검사소장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의 강사로는 순천향의대 이동환교수가 초빙되어 슬라이드를 통한 대사이상질환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교육 되었다.

한편 둘째날인 21일에는 순천향 의대를 방문해 실제로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는 모습을 견학했다.

추운 겨울의 따뜻한 인정

불우이웃돕기 일일чат집, 충북지부 여직원회 열어

건협 충북지부 여직원회가 불우이웃돕기 자선모금 일일чат집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7일 충북도청 근처의 “교차로 다실”에서 있었던 이 일일чат집에서는 총 46만여원이 모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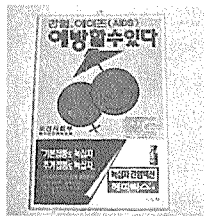
건협 충북지부 여직원회는 이익금 전액을 청주 문화방송국에 기탁했는데, 한편 청주 MBC는 바쁜 업무 가운데에도 이웃을 위해 뜻있는 일을 한 이들의 노

고를 지난 12월 23일 19:00에 방송된 기획프로 “여기는 충북”을 통해 소개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정, 흥청거리는 연말연시의 풍요로움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웃을 위한 그들의 행동은 추운 겨울을 훈훈한 인정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었다.

AIDS·간염 홍보 표지판 부착

전국 보건소, 지소에 1,813개



AIDS 및 간염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의식을 인식 시키기 위한 AIDS, 간염 홍보

표지판이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도소에 설치되었다.

'87년 AID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상되었던 본 사업은 (주) 광명기획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9월 보건사회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주) 녹십자의 협조로 지난해 12월 현재 총 1,813개의 홍보판이 전국

각 보건소·보건지소에 설치되었는데 건협 각시·도지부에서는 앞으로 본 홍보판을 관리키로 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 전국 유흥업소·목욕탕, 이·미용업소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88년도 사업 마무리

健協 증무식

健協 본부 및 각 시·도지부는 지난해 12월31일 본·지부별로 증무식을 가지고 '88년도 사업을 마무리했다.

한편 본부에서 있었던 증무식에서 서병설회장은 『어려운 가운데로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89년도에도 변함없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